

Pamiry

Autumn 2013 vol.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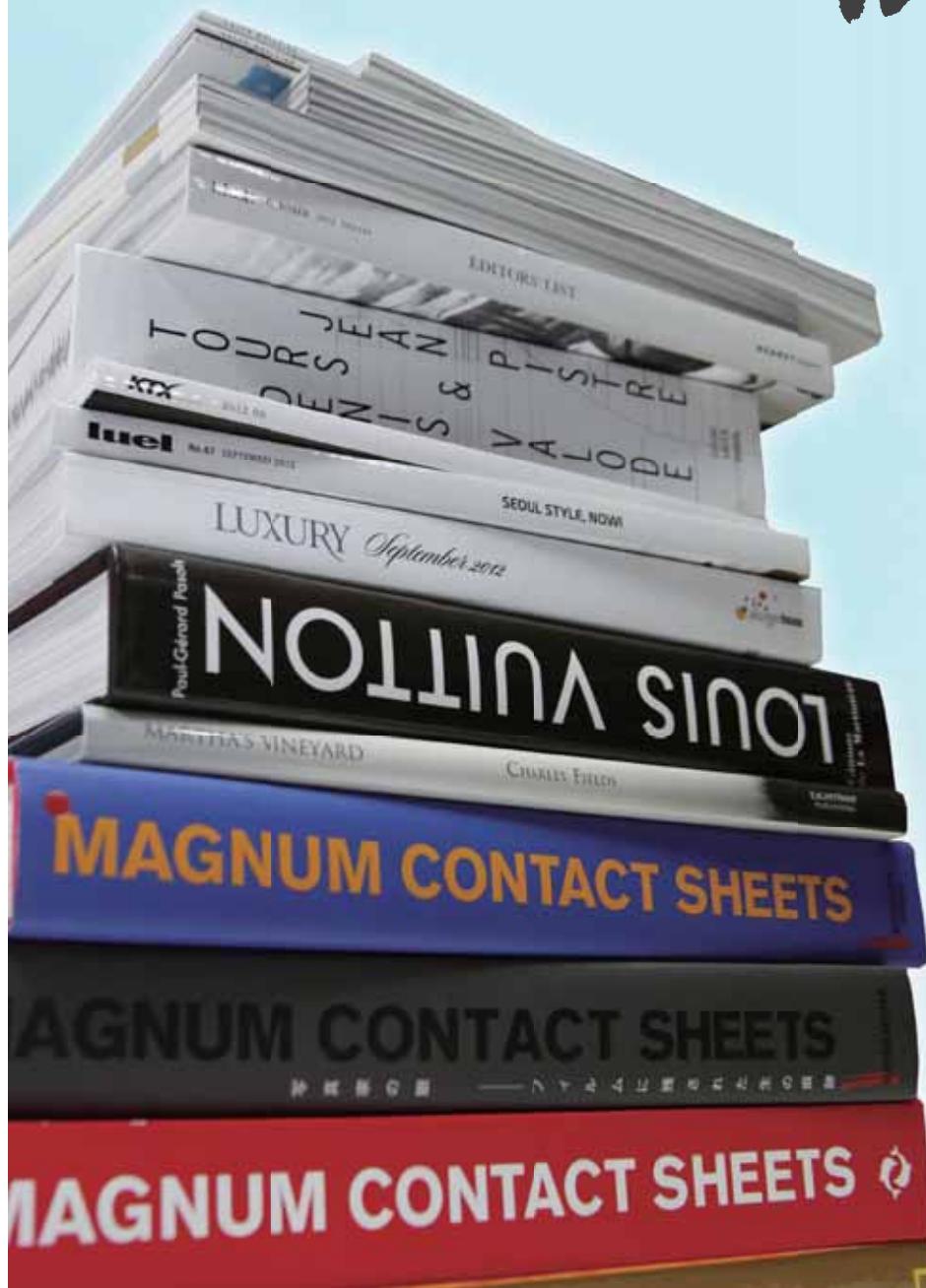
도쿄국제도서전

수암공장 현장 스케치

쾌속 질주! PACOM 접지열차



고객의 만들면 명품이다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Pacom

Pacom AAP

MIRAEING

Pacom Books

BOOK JIHYERO

Book Make

BOOKMATE



CONTENTS

Autumn 2013 vol.03



- | | | |
|----|----------------|-------------------------|
| 02 | 북페어 | 도쿄국제도서전 / BEA / 북미시장개척단 |
| 04 | 창찬합니다 | 패밀리 칭찬릴레이 |
| 05 | 가을이야기 | 나만의 계획 TIP |
| 06 | 패밀리피플 | 정순이 사원 |
| 07 | Message of CEO | 아들의 결혼식 |
| 08 | 공감 | 독서의계절, 가을 조지원 |
| 09 | 수암동 일기 | 수암공장 현장스케치 권기형 |
| 10 | 힐링로드 | 천사의 도시 방콕으로 향하다 |
| 11 | 가족의편지 | 이선재 대리와 가족 |
| 12 | 부서소개 | 쾌속질주! 팩컴접지열차 |
| 13 | 시 | 소요산에 단풍들면 |
| 14 | 팩컴파트너 | 범창페이퍼 |
| 16 | 찰칵소리 | |
| 18 | 팩컴뉴스 | |
| 20 | 팩컴이모저모 | 홍익미술전후원 / 팩컴동호회5 |

교복처럼 만들어진 명품이다





20th 도쿄국제도서전

7월3일부터 나흘간 해외영업부 창조팀 황철원 부장, 홍석준 대리, 여성민사원이 세계 제 2의 출판시장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1. 도쿄국제도서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2013 도쿄국제도서전]은 한국을 주제국으로 초청해 '책으로 잇는 한·일의 마음과 미래'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40여 개국 1125개 출판·인쇄·유통업체가 참여했습니다.

2. 팩컴코리아는 부스를 갖추고 도서전에 참가하였나요?

네, 팩컴코리아 부스는 서울인쇄협회에서 함께 온 다른 기업(해인그래프, 청아프린팅, 타라프린팅)과 같은 곳에 설치됐습니다. 인쇄에 대해서 호기심 있고 인쇄를 필요로 하는 여러 제작자들이 방문 했으며 팩컴의 고객이자 일본지사인 프리린 식구들도 함께 참여하여 고객 마케팅에 힘썼습니다.

3. 처음 참가한 도서전은 어땠어요?

황철원부장님과 홍석준대리님께서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황별 대처법을 배울 수 있었고, 중요한 고객인 프리린도 도쿄도서전을 통해서 만났다는 사실에 북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책을 구입하려 온 소비자들이 많았고 고객 한 분 한 분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이번 도서전을 통해 비즈니스 마케팅 방법을 숙제로 남겨왔습니다.

4. 도서전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나요?

1층에는 출판사, 인쇄회사, 크리에이터들이 중심으로 부스를 이루었으며, 2층은 역시 IT의 강국답게 책과 전자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을 보여주는 e-book회사 및 전자 회사들이 중심이 되어 앞으로의 미래 책 시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는 Adobe System, Toshiba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e-book코너에 한국 기업들이 참가한 것을 보고 국내 전자북 관심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전자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종이책의 수요는 여전히 많습니다. 저는 이번 북쇼에서 그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 도서전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실제 북쇼에 참가하여 마케팅에 대한 경험을 해보니 우리회사를 소개하고 만남을 가지고 회사를 부각시켜 관심을 끄는 일 등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서로 미팅을 갖는다고 해도 실제 RFQ를 받고 이것이 PO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시간대인 점과 운송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은 미국과 비교해 장점이 많으며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시장이므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만났던 잠재 고객들의 리스트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방법을 찾는데 힘쓸 예정입니다.

2013 Book Expo America



2013 뉴욕국제도서전 (2013 BEA)이 지난 5월 29일부터 2박 3일 동안 미국 뉴욕 자비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북엑스포 아메리카’는 북미 최대의 출판관련 전시회로 대한

민국을 비롯해 호주, 칠레, 중국, 크로아티아, 이집트 등 78개국에서 1316명이 참가했습니다. 북엑스포아메리카는 다른 국제전시회보다 짧은 2박 3일 동안 열렸기 때문에 전시회 시작 전 5백 명이 넘는 입장객들이 30분 이상 일찍 와서 대기 줄이 100여 미터가 넘는 진풍경을 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팩컴코리아(주)는 1992년 이후 뉴욕국제도서전에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철성 부장님과 오지혁 과장님은 여러 차례 도서전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접할 수 없었던 현재 및 잠재 구매자와 직접 만나 상담하여 팩컴코리아(주)의 인쇄물 수출 증대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오셨습니다. 그 결과 약 30개의 업체와 Contact하고 있으며 이 중 DeAGOSTINI-ITALY, Ray Hignell Services, Inc. Guilford 등 11개 업체로부터 Inquiry를 받고 견적을 제공한 상태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기 힘든 이 시점에서 국제 도서전에 참여하여 신규고객 발굴에 힘쓰고 돌아오신 두 분의 결실이 맷길 바랍니다.

북미시장에 첫발을 내딛다



첨단기 최광복

2013년 8월 26~31일까지 성남시에서 주최하고 GSBC(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주관 및 KOTRA에서 협력기관으로 함께 한 ‘2013 북미 시장개척단’에 팩컴코리아(주) 해외사업 기획 지원팀 김상광 부장님과 참여하여, 경제 및 수입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북미시장에 대한 판로 확대 모색 및 시장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 미국 LA에서 5개 업체 그리고 캐나다 Vancouver에서 3개 업체, 총 8개의 북미 현지 인쇄 및 출판 업체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소규모 업체부터 예술가들의 포트폴리오 북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 한인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업체, 현지 최대규모의 매거진 인쇄 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새로운 거래선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도서전과 달리 팩컴코리아(주)와의 만남을 원하는 특정 업체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해외시장에서의 팩컴코리아(주)의 인지도와 경쟁력 있는 설비 등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북미 8개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모든 업체로부터 향후 Inquiry를 받아 견적과 샘플북을 제공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기존 해외 거래선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팩컴코리아(주)가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패밀리 칭찬릴레이



정비부
박성배 사원

본인이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군포공장과 수암공장의 설비 수를 합하면 적은 숫자가 아닐텐데 회사의 모든 설비와 전기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달려와서 수리를 해 줍니다. 조금 무뚝뚝한 면도 있지만, 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봐달라고 하면 싫은

내색 없이 바로 달려와서, 살펴보는 섬세한 면에 모두들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회사 어느 곳 박성배 사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비를 수리하다 묻은 기름때로 인해 그의 옷이 깨끗했던 적이 없었으나 그 흔적이 그의 성실함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인쇄사업본부 윤전팀
구본성 대리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입니다. 짓궂은 장난을 쳐도 센스 있게 받아주고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에 주위를 항상 즐겁게 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입니다. 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를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맡은 일에 충실히 합니다. 항상 앞장서서 솔선수범 하려 하고, 뭐든 스스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본받을 만하고, 칭찬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생산관리 물류팀
오범세 사원

회사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나 인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받아야 하고 현장에 용지 등을 입고 시켜 일을 바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출근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30도를 넘는 날씨에 하루를 거의 바깥에서 보내기 때문에, 땀으로 목욕을 하다시피 하고 한겨울엔 바닥에 쌓인 눈들을 치우고 비가 오면 마당에 쌓여있는 출고물들이 비에 젖지 않게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과 고충이 따릅니다. 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맡은바 임무를 다하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안쓰럽기만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일거라 생각합니다.



제본사업본부 접지팀
이정근 과장

회사 내에서 가장 많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 공정의 기장으로서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다른 곳에 비해 더 많습니다. 10명의 인원으로 8대의 기계를 가동 하려면 다양한 어려움이 동반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맡은바 책임과 열정을 다하고 작업 능률 향상

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언제나 보기 좋습니다. 갑작스런 문제나 스케줄 변동 이 생겨 일을 해야 할 때 아랫사람을 시키기보다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랫사람을 위할 줄 알며 배려하는 모습에서 형처럼 가깝게 느껴져 많은 의지가 됩니다.

가을을 향한 신호탄

아름다운 낭만의 계절 가을을 즐기기 위한 나만의 계획 TIP

가을 여행



템플 스테이

산 깊은곳에 위치한 절에서 하루 묵으며, 참된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템플 스테이는 1박 2일 동안 절에서 머물

며 종교에 상관없이 사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기본 프로그램 (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① 사찰안내
- ② 참선 : 참 나를 밝히는 작업으로서 한국불교의 중심이 되는 수행법
- ③ 스님과의 차담 :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한 수행자인 스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
- ④ 발우공양 : 사찰에서 스님들의 식사법
- ⑤ 예불 : 부처님을 경배하는 의식
- ⑥ 108배 : 절 할 때마다 참회하여 온갖 업으로 인한 번뇌를 소멸하는 의식
- ⑦ 연꽃 만들기 : 연꽃은 마음속의 불성을 의미, 연꽃처럼 살고자 하는 염원의 행사

템플스테이 신청 : 조계종 템플스테이 공식홈페이지(www.templestay.com)를 통해, 템플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축제/공연 소개



서울세계불꽃축제

일시 : 매년 9월말~10월초 오후 8시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 일대

내용 : 오후8시, 30분

간 국가별 · 날짜별로 다양한 종류의 불꽃을 선보이며, 축제가 끝난 뒤에는 불꽃사진 공모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대한생명

63빌딩 전망대에서 기념 사진전이 열린다.



부산멀티불꽃쇼

일시 : 2013년 10월 25일~10월 26일 오후 8시

장소 : 광안대교, 광안리해수욕장

내용 : 이번 불꽃쇼는

불꽃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랑'을 주제로 부산불꽃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초대형 불꽃과, 레인보우불꽃을 비롯하여 역대최고의 불꽃을 선보일 계획이다.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일시 : 2013년 10월 3일 ~ 10월 6일

장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내용 : 북한강에 떠 있는 자라섬은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수변 산책로가 조성되고 체육시설과 자연수목 휴양림이 만들어지는 등 가꾸어지기 시작했다. 재즈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뮤지션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그들이 들려주는 선율에 몸을 맡기고 함께 교감하는 감동적인 축제이다.

예매 : 인터파크 / ticket.interpark.com / 1544-1555

추천 가을 음식



추석나물 재활용 김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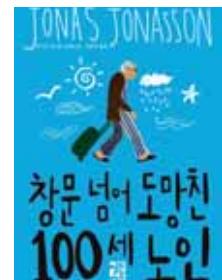
재료 : 밥 1공기(식초 1티스푼, 설탕 1티스푼, 참기름 1티스푼, 소금 간), 고사리나물, 시금치, 숙주나 콩나물 등 나물 3종, 달걀 2개,

김, 겨자초장(연겨자 1티스푼, 식초 1티스푼, 설탕 1티스푼, 간장 1티스푼, 꿀이나 물엿 1/2티스푼, 매실청 1티스푼, 소금)

· 요리 방법

- ① 추석 때 먹고 남은 나물 3종류를 준비한다.
- ② 김 1/2장에 나물을 하나씩 따로따로 쌌다.
- ③ 얇게 계란 지단을 부쳐 김 위에 한번 더 밀아 준다.
- ④ 김 1장을 피고 위에 밥을 피고, 그 위에 준비한 3종의 나물 계란김말이를 올려말 아 준다.
- ⑤ 김밥에 참기름을 약간 바르고 썰어주면 완성! 겨자 초장에 찍어 드시면 더 맛있어요~

독서의 계절에 읽을만한 책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요나손 세계 역사를 뒤바꾼 영감님의 모험!
100세 생일날 슬리퍼 바람으로 양로원의 창문을 넘어 탈출한 알란이 우연히 간단의 돈가방을 손에 넣고 자신을 추적하는 무리를 피해 도망 길에 나서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박혜란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자라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바라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다는 저자의 교육 철학을, 아이들이 자라면서 벌어진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설득력 있게 담아냈다.

현장의 활력소이자 가족의 맘언니처럼 든든한 재분사업본부의 버팀목 같은 존재

정순이 사원과의 만남



회사에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성인문화사 때부터 근무해서 올해로 23년째 근무 중이에요.

집안일과 병행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그만두고 싶진 않으셨어요?
집안일과 병행하는게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아직도 힘들다기 보다는 오히려 지금도 일하는 것이 즐거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적이 없어요.

오래 근무하신 만큼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수박서리!! 15년 전쯤에 성인문화사 일 때 영동으로 극기훈련을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 때 레프팅도 하고 이것저것 했지만 그 중에서도 숙소 옆에 있던 수박 밭에서 몇 명 분들과 함께 수박서리해서 함께 먹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그때 같이 수박서리 했던 분들중 아직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답니다^. 누군지는 secret!

근무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학자금 지원이 가장 좋았어요.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 받고, 둘째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은 덕분에 힘들지 않게 딸이 졸업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지금은 공무원이 되어 안양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휴가도 가족이랑 보내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휴가가 있다면?



손녀딸까지 포함하여 7명이 함께 작년 6월초에 괌에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여행 중간에 둘째 사위 생일이 있어서, 둘째 딸이 다른 여행 팀 사람들까지 모아서 함께 파티도 하고, 공연도 보고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외국에서 파티를 연

다는 건 생각도 못했었는데 색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바나나 보트!! 식구들과 바나나보트를 탔는데.. 속도가 얼마나 무섭던지.. 아휴~~~ 그래도 시원하고 나름 스릴도 있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정순이 사원에게.. 가족이란?

나의 힘의 원천이고 에너지 이자 희망이고 행복이죠. 가족이 있기에 힘들어도 버티고, 작은 것 마저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원에게 동료란?

가족만큼이나 더 가족 같은 존재죠. 함께 일해온 시간도 길고, 바쁜 시즌에는 철야까지 하고 나면 오히려 집이 하숙집 같은 분위기가 돼버려요. 그렇기에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예요.

동료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지금처럼만 마음 변하지 않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친형제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동료 분들에게 한마디 묻고 갈게요! 정순이 사원님은?



하상진 대리 :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책임감 갖고 더 부지런 하신 분이죠.

정정례 사원 : 3층의 왕 언니라 불릴 정도로 잘 챙겨주세요.

심은식 과장 : 장점이 너무 많은 분이라 한가지 꼭 집어서 얘기하기 힘든 분이죠.

이채영 대리 : 모든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시고, 누나 같이 편안한 분이죠.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정순이 사원님 및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아울러 이 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더위와 맞서며 근무하시는 현장 분들께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들의 결혼식

언제였더라 내가 결혼한지가?
되돌아 시간을 계산하게 되네요.
어언 30년의 결혼생활 동안에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아이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올해 큰아들이 결혼을 해 귀한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셀레임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얻는다는 것도 행복했고요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얻는 것이 좋은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안이 좋은? 인물이 출중한? 배움이 높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사람간에 사랑이지요.
함께하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이 기야 하는 길에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두 사람을 맷어준다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고요.
아들 내외의 주례사 중 감사하고 사랑하며 믿음을 갖고 계획을 세워 살라는 말씀처럼
이를 실천하며 두 사람이 잘 살거라 믿습니다.
저 역시 두 사람의 삶 속에 끼어 들기 보다는 그 옆에서 응원하며 행복을 빌어보려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할 귀한 자녀를 또 얻었으니까요.

2013년 광복절에 독립을 선언한 아들내외를 바라보며.

최 숙 전무이사

독서의 계절, 가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다. – 도마 안중근



특별기자 창조팀 조 지 원

멋모르던 시절, 처음 이 문구를 접했을 땐,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곧 나에게 책의 의미를 묻는다면 이 말 밖에는 떠오르는 게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지독한 시춘기를 겪을 무렵, 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되었을 때 책은 내게 말했다. 그대의 부모님들은 그대가 모르는 사이 아마 세상으로부터 크나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들을 용서하라. 세상은 과거에 비해 너무나 척박하고 살벌하고 냉혹하다. 어른이 되어도 쉽사리 흔들리고 쉽사리 상처를 받고 쉽사리 쓰러져버리기 일쑤다. 그리고 그대의 부모들은 그런 불쌍한 어른들에 지나지 않는다.

한없이 나의 투정과 나의 힘듦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해해줘야 하는, 그런 신도 하기 어려운 일을 부모님께 기대했던 철없던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의 부모도 흔들릴 수 있는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난 또래보다 더 일찍 효(孝)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실행 중이다.

그 일을 계기로, 나에 대한 책의 애정 어린 잔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다.

아는 것이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만하고 있다. 더 많이 배우고 겸손하라.

‘욕심’을 버리지는 마라. 대신 인욕(人慾)을 멀리하고 친욕(天慾)을 가까이 두어라.

모든 사람은 고귀하다. 네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대로 너의 가족에게 돌아올 것임을 항상 잊지 말라.

책은 그렇게 다독이면서, 타이르면서 나를 성장시켰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해주었다.

책을 읽으면 사람과 공감하기가 쉬워진다. 책을 읽으면서 사람마다 자신의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 견해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얻는 것은 ‘주장을 하기 위한 설득력’보다는 ‘수용을 위한 경청의 힘’인지도 모른다. 저마다의 의견을 존중하며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의 여유로움을 얻는 것이다.

어느덧 가을이다. 실랑이는 바람에도 마음 어느 한 쪐이 시큰거린다면, 책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어쩌면 내면의 허기짐을 채워줄 수도, 어쩌면 기족과의 끈끈한 친밀함을,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까?

우연히 한 매체에서 늦은 나이에 독학으로 한글을 깨우친 한 노인의 책 읽는 모습을 보고 경건함을 느꼈다. 글을 읽을 수 있음에도 책 읽기를 더 미룬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까막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암 공장 현장 스케치

유래 없이 기나긴 장마 후 이어진 열대야,
잠을 청하지 못해 뒤척이다 출근하기가 일수었던 8월



특별기자 팩컴수암공장 권 기 형 부장

현장 식구들의 억센 움직임이 한창이다.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연병장 아스콘에 내리쬐는 열기보다 3~4도는 더 높다.

아침에 바삐 바르고 나온 분가루를 땀으로 씻겨 내려 보내는 구유순 과장, 그녀의 바쁜 걸음이 오늘 작업 폭염을 걱정하는 듯 하다. 용역에게 자리를 잡아주고 야간작업 체크를 끝낸 그녀가 사무실로 돌아온 그 때 시계는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주야 작업이 일주일 넘게 되고 있는 벽걸이 바인딩, 그리고 타공에선 주간 조와 야간 조 간에 작업 전달로 어수선하다.

아침 7시 출근 정합, EXO화보집 밥을 대기 위해 85rpm의 속도를 받아내고 있는 문수의 반팔 셔츠 무늬는 별써 여러 개의 하얀 소금 줄로 변해 있었다. 무스를 빌라 한껏 넘긴 품 나는 헤어 스타일 바로 아래 그의 얼굴에서 기름기와 소금기 가득 찬한 사나이 냄새가 풍겨 나온다.



구유순 과장



이준희



목문수

입사 때 턱구공만한 머리의 소유자였던 준희는 출고를 관리하면서 축구공만해진 머리가 아직 적응이 안됐는지 A동에서 B동으로 연병장으로 그렇게 오늘 출고 견과 함께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웬지 불안하다. (준희야 정신 줄 놓지 말아라!!)

휴가 전 인대파열로 급스 상태에서 십여일 간 을 심하게 절뚝거리며 BT와 VP Fedex를 이끌면서 작업을 마무리해 주었던 태언이가 오늘은 멀쩡한 두 다리로 출근해서 더 반갑다.



김태언/박범우 과장

폭염에 주문량, 납기일, 품질 무한경쟁에 몸 사리지 않았던 안산공장 식구들에게 8월의 열기는 출고될 3대의 컨테이너와 함께 빠져 나갈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살갗에 닿는 기분 좋은 바람과 함께 점점 넓어져가는 천막 안 빈

자리는 다시 채워지겠지. 8월 한낮 폭염보다도 더 뜨거웠던 안산공장 식구들의 열정은 그렇게도 맹위를 떨쳤던 여름을 이겨내고 기분 좋은 9월을 맞이 할 것이다.



사와디카~ 천사의 도시 ‘방콕’으로 향하다!

유난히도 덥고 습했던 여름날 태국의 수도 ‘방콕’으로 향했다. 220년 동안 수도를 이어 이어오고 있는 방콕은 현지 지명인 ‘끄룽텝 Krung Thep’의 뜻을 빌려 천사의 도시라 불리기도 한다. 화려한 사원과 궁전, 수상가옥, 수많은 쇼핑센터 등 거리거리마다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 중의 유품은 천사의 미소를 담고 있는 태국인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태국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국가답게 도시 곳곳에 불교 사원들이 눈에 띄었다. 그 중에서도 200년 역사를 지닌 ‘왓포’ 사원을 방문하였는데, 가장 큰 불거리는 길이 46m, 높이 15m에 달하

는 거대한 와불상이었다. 거대한 와불상은 부처가 열반에 드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단아하고 고즈넉한 절의 모습에 비해 화려하고 웅장한 태국의 절은 큰 불거리를 제공했다. 사원 동쪽 끝에는 ‘왓포 타이 전통 마사지 스쿨’이 있는데, 태국 전통 마사지를 경험하고 싶은 분께 추천한다.

사원을 신나게 구경하고 ‘카오산로드’로 발길을 옮겼다. 전 세계 배낭 여행객들의 집합소라는 명성에 맞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즐비했다. 400m 남짓한 짧고 복잡한 거리, 거리 양쪽을 차지하는 허름한 건물들, 이 건물들 사이에 걸린 네온사인이 이곳의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그래서 카오산로드 ‘낮’의 풍경만 본 관광객이라면 많이 실망할 수도 있다. 카오산로드의 진면목은 땅거미가 내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간 ‘밤’일 것이다. 우리나라 홍대거리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곳의 진정한 매력은 ‘젊음’과 ‘무국적 공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카오산로드뿐 아니라 방콕 거리 곳곳에 노점상들이 음식을 파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중 ‘파타야(볶음쌀국수)’와 ‘땡모獭(수박주스)’의 맛은 아직도 생생하다. 무질서 할 것 같지만 흐트러지지 않은 거리, 젊음, 여행 이 삼박자로 인해 카오산로드를 걷는 내내 흥이 났다.



태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수산 시장이다. 방콕에서 1시간 반을 차로 달리면 매끌롱 강변을 따라 열린 암파와 수상시장과 수상가옥을 만날 수 있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사진 속에서만 보던 풍경 속에 들어와 있으니 카메라 셔터를 멈출 수가 없었다. 시장 구경하랴, 음식 먹으랴, 사진 찍으랴, 정신 없이 손과 발, 눈과 입을 운동시키니 만나절이 모자랐다. 밤이 되자 암파와 시장의 또 다른 백미 반딧불을 보러 밭걸음을 재촉했다. 수로를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야생의 숲에서 반딧불을 만날 수 있다. 배를 타고 반딧불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해가 지는 매끌롱 강변의 풍경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운 좋게 뱃머리에 앉았던 나는 멋진 풍경을 장애물 없이 볼 수 있는 영광과 함께 매끌롱 강물 세례도 받을 수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반딧불은 반짝반짝 크리스마스트리 같았다. 영화 속에서 봤던 미화된 빛과 비교하면 초라할 수 있지만, 소박한 낭만이 있는 반딧불 앞에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어 행복했다.



정신 없이 방콕을 즐기는 사이 마지막 날이 되었다. 아쉬운 마음 달래며 마지막 일정은 방콕의 야경 바라보기! 옥상 노천 바에서 바라본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는 금빛 잔치 같았다. 야경을 바라보며 카페일 한잔을 마시니 짧았지만 강렬했던 방콕여행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평소 누리지 않았던 호시를 부리니 여행의 마지막 밤이 더 아쉽게 흘러갔다.

남편에게 들려주는 아내의 노래

한달의 보름 정도를 낮과 밤이 바뀐 채로 일하는
제본사업본부 무선 공정의 이선재 대리.

그런 남편의 불규칙한 생활에 아내는 힘들 법도 한데 힘든 내색 없이
저녁에 출근할 때나 아침에 퇴근할 때에도 매번 밥상을 차려 준다고 하네요.

[언제나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하늘아빠에게](#)



항상 밤낮 가리지 않고 가족을 위해 일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 든든함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가끔 힘이 들고 지쳐도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시 힘이 난다고 말해주는 당신... 이런 당신을 만난건 제게 있어 최고의 행운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다고 애기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을 이번 기회에 하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주고 가정에 충실한 우리남편 고마워요”

지금까지 같이 해왔던 길을 돌아보면 참 다시다난 했어요.

첫째 하늘이가 당신에게 아빠라고 첫 말을 했을 때 한없이 좋아하던 당신의 모습. 그게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좋았던일... 슬펐던일... 등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달려 왔던 것 같아요.

하늘이는 유아교육과를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꿈이고 좋다 하고, 둘째 슬기는 당신을 닮아서 자기표현에 서투르고 무뚝뚝하지만,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간호사가 꿈이라 하고, 당신을 유난히도 많이 따르고 해맑게 잘 웃는 막내 재원이는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군대를 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 나라를 지킬거라 하고...

언제나 얘기 인줄만 알았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 부모로서 뿌듯함과 곱게 잘 성장 하는 거 같아서 대견스럽기만 하네요.

시끌벅적 했던 집이 아이들이 커서 예전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쉽기도 하고, 그리울 때도 있지만,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들을 보면 한없이 자랑스럽기만 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은 홀륭한 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요. 앞으로 좋은 날만을 바랄 순 없겠지만,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즐거울 땐 함께 즐거워하고, 힘들고 지칠 때면 우리 서로 의지하여 반침대가 되어주도록 해요. 일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강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언제나 밝게 웃는 당신의 모습 멋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모습을 사랑합니다.

쾌속 질주! PACOM 접지열차

인쇄 제본에 꼭 필요한 공정 중의 하나인 접지공정 공장에 들어 오면 제일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글로 표현 할 수 없는 소리이지요. 공장의 생동감 있는 화음에 맞춰 “탁 탁 척 척 탁탁 척척~” 소리가 멈추는 시간은 쉬는 시간, 점심 시간뿐~ 팩컴의 접지 열차는 10명의 기장이 가동 중입니다.



요즘 생산성 향상을 고민을 하느라 웃는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이정근 과장은 담배의 유혹을 뿌리치고 기필코 다음 금연에 성공하겠다고 다시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접지팀은 아름다운 부부(박종천대리, 김명숙사원)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부부의 금실은 팩컴에 이미 소문이 나았습니다.

근무복장의 표준, 머리스타일도 표준인 박용진 기장님은 접지의 웃음 보파리. 이분이 있어 접지팀은 접지소리와 함께 밝은 얼굴 표정으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형제(박성현 기장, 박성용 기장)가 근무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두 형제를 보면 외형상으로 닮아 보이지 않지만 성격을 보면 형제라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말없이 미우나 고우나 열심히 웃는 얼굴로 일하는 괴영근 기장, 이제 곧 입사한지 1년이 다가오는 김영숙 사원은 항상 젊음을 만끽합니다. 이번 접지 사진 촬영 할 때도 제일 늦게 참여 했답니다. (아유는 얼굴맵시 단장~) 막내는 아니지만 막내 티를 제일 많이 내는 박세리 사원의 목소리는 접지 열차보다 화음이 더 올라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팩컴의 쾌속질주 접지공정은 언제나 인쇄와 제본 공정을 위해 쉬지 않고 가동 중입니다. “탁 탁 척 척 탁탁 척척~”

소요산에 단풍 들면

황 철 원



햇살 좋은 소요산 자락
별씨 단풍이 들었다

산을 찾은 사람들
형형색색
그 옷 색상 만큼이나
곱게 곱게
우아한 자태로
마지막 가을 햇살을 받아
제 멋대로 변색하여
여유롭다

어느 화가가
어떤 다양한 물감으로
이렇게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어느 시인이 저 화려한 자태를
제대로 표현 할 수 있을까?

가을 한철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
봄부터 인내한 기인 시간에 비해
너무 짧은 시간
그래서 더 화려한
그의 한 해는 다 가고 있다

소요산에 단풍이 들면
막걸리 잔 가득
가을이 넘쳐 흐른다

Promotion House



Pacom's Partner
범창 페이퍼(주)



저희 범창페이퍼(주)는 1997년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꾸준히 성장을 거듭한 지류유통 회사입니다. 이는 저희 고객사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실이라 확신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팩컴코리아(주)와 사업파트너로 인연을 맺게 됨으로서 당사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의 열악한 인쇄업계의 환경아래 품질과 경쟁력으로 해외시장에서 승부하시는데 당사 또한 협력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인쇄업계 환경과 마찬가지로 지류유통업계 현실도 매우 어려운 실정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한정

된 제지회사에서 생산된 동일제품으로 경쟁력과 이익을 창출하기란 한계성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마진 판매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무엇보다 “많이 팔아야 남을 수 있다” 가 자연스레 저희같은 대형유통사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창페이퍼(주)는 항상 열려있는 마인드와 타사와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강점으로는 인쇄용지, 산업용지 두가지 분야를 모두 취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장 전반을 두루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고 감소추세에 있는 인쇄용지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패키지 분야의 산업용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매비율로는 월평균 인쇄용지 5,000톤 산업용지 3,000톤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소량 단품종이 많은 산업용지 재단물량을 위해 롤컷팅기 2대도 도입하여 필요한 규격으로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표이사님 이하 임직원 분들도 제지회사에 재직을 하셨고 종이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고객사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환경의 인쇄업계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계 관련된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많은 변수가 내재하고 있는 제지업계에서 유통사인 저희 역할은 고객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변하며 방어하는 일임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김경수대표이사님께서 “세계는 넓고 인쇄물은 많다”라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인쇄물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생각을 떨칠 수 있는 말씀이기에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팩컴코리아(주)와 당사와의 인연도 어느덧 횟수로 10년이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쇄문화 발전과 수출시장 개척에 늘 기여하고 계시는 팩컴코리아(주)의 협력사인 저희로서도 아주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인쇄물 수출 1위 기업과 같은 마음으로 발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파트너쉽으로 계속해서 인연을 맺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cellent Binding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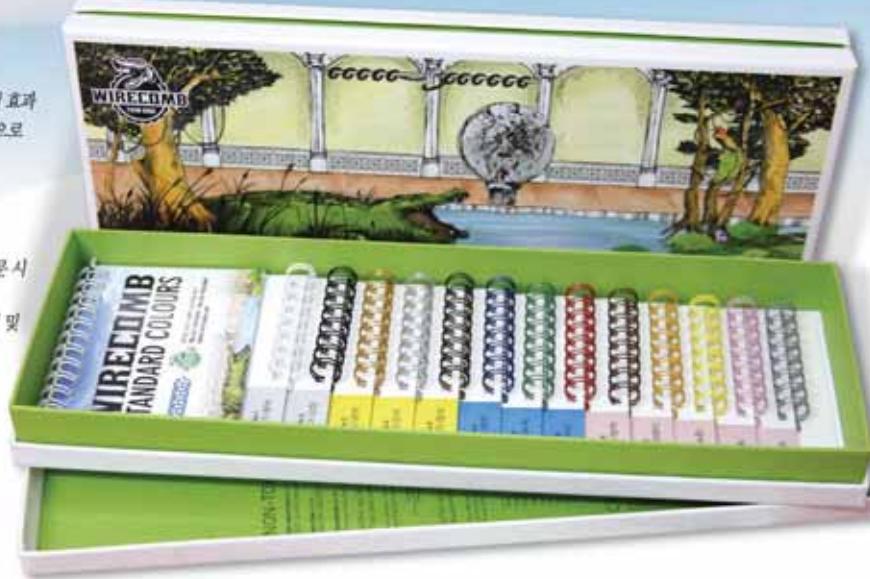
와이어콤 (WireComb)

www.wirecomb.com

'와이어콤'은 사무 및 문구용품 외 다양한 와이어링 제본 및 제책에
사용되는 고품질 트윈링 제품입니다.

제품 특징

- 강력하고 안정감 있는 복 바인딩 효과
-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 사용으로
안전성 강화
- 무독성의 친환경적 재료 사용
(SGS 무독성 실험 통과)
- 사용하기 편리하고 간편한
- 다양한 색상 및 사이즈 고객 주문 시
제작 가능
- 다이어리, 브로셔, 노트, 카レン더 및
다양한 와이어링 제본에 적합



*Strong Binding, Easy & Safe,
Eco-friendly with High Quality*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 발명 특허 보유



와이어콤은 트윈링이 적용된 제본 제품의 최종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커팅된 트윈링 엣지(링 끝부분)를 구부리는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를 발명하여 특허를 받았다(특허 출원번호 제 2010-0139793 호).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는 커팅하여 날카로워진 트윈링의 끝부분을 라운드 형식으로 구부려 마감 처리함으로써 해당 트윈링이 적용된 책자 사용 시 찔리거나 다툴 위험성을 없애고 사용상의 불편함을 개선해주는 장치다.

SGS 무독성 테스트 통과!

와이어콤은 소비자의 인체에 접촉되기 쉬운 트윈링 제품의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품 샘플에 대해 직접 SGS 홍콩 지사에 품질 테스트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재료 성분에 들어있는 9가지 성분 항목에 걸쳐 시행된 무독성 여부 실험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다.

SGS는 1878년 설립되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300여개 지사에서 단일 네트워크로 시험, 검사 및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검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



웨컴코리아(주) 트윈링 사업부 / 홈페이지 : www.wirecomb.com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동 55번지 웨컴코리아(주) 안산공장 내
전화 : 031)483-3666 / 팩스 : 031)483-5857



찰떡소리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사진을 보내 주세요.

E-mail : suhee5336@nate.com





PACOM NEWS

신임 사무관[5급] 중소기업 현장 근무



지난 6월 24일~28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중앙부처 신임 사무관 8명이 현장의 소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현장근무를 실시했다. 신임사무관 8명은 첫날부터 제본사업본부의 포장, 재단, 접지공정에 투입되어 하루 8시간씩 5일간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쉬는 시간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현장 분위기를 익혔다. 처음 직원들과 일할 때는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조금 서먹하고 딱딱한 느낌이었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현장 직원들과 어울리며 형님, 어머님 등의 호칭으로, 또한 우리 직원들은 동생, 자녀들과의 일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현장의 소리를 경청했고 마지막 날은 대표이사님과의 미팅으로 5일간의 현장 경험담을 나누며 마무리하였다.

중소기업 탐방 방송 “채널 뷔” 방송



팩컴 군포 공장에서는 케이블 방송 “채널 뷔”的 촬영이 있었다.



이날 촬영은 중소기업에 입사해 새내기 활동을 하고 있는 신입직원들

의 업무일과를 담는 촬영이었다. 2013년 입사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입사 전 기대감과 6개월이 지난 현재의 직장 생활 모습 등을 촬영하였으며, 이날 인터뷰

에 응한 직원 중 한명은 처음엔 당황한 기색으로 인터뷰를 꺼리는 듯 했지만 오후에는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허물없이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다. 이날 촬영분은 9월말 방송예정이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전국 회원 중 6개 업체가 선정되어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즐거운 식사시간 식당으로 가는 길



7월 중순부터 비오는 날 식당으로 향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한결 가벼워졌다. 회사 사정상 식당이 5층에 중축 설치되어 있어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가지고 식당으로 가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직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를 실시했다. 현재 투명렉산으로 설치가 완료 되어 직원들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은행 경영컨설팅 실시



지난 7월부터 1개월간 기업은행의 협조로 회사의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이번 컨설팅은 기업은행 컨설팅 센터에서 2명의 책임컨설턴트가 각 부서

업무 분야를 1)현상분석 2)타사 벤치마킹 3)개선방향 및 과제도출 4)개선방안 수립 순으로 진행되었다. 집중 분석한 결과가 회사의 새로운 도약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표이사님 자녀 결혼식



8월 15일에는 대표이사(김경수)님의 자녀 결혼식이 삼성동 웨딩의 전당에서 있었다. 이날 결혼식은 우리 회사의 중요 행사에 꼭 참석하시는 김경수 대표님의 고교동창 개그맨 이원승님의 색다른 진행으로 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 되었다. 늠름한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예식은 더욱 빛났고 신랑측 부모님이신 대표이사님 내외분께서는 조금은 긴장된 모습으로 하객들을 맞이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녀분의 희망찬 앞날을 기원합니다.

오후 3시간식 데이트



회사 식당을 운영하는 ecmd(주) 주관으로 직원들의 오후 출출한 시간을 위한 오후 3시간식데이트 행사가 지난 9월 13일 진행됐다. 간식을 원하는 직원이 사연을 올리면 그 소속부서가 이벤트에 선정되었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기장님들

PACOM NEWS

과 간식을 먹고 싶다”고 올린 인쇄 인쇄사업 본부와, “든든한 상사의 따뜻한 격려로 신입사원의 일화를 들려준 분과 함께” 간식을 먹고 싶다는 창조팀, “4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사정상 퇴사하는 직원의 뒤를 이어 입사한 직원이 함께 송별간식을 하고 싶다”는 북메이크팀 등 4개 팀이 선정되어 오후시간에 (오후3시)간식 데이트를 실시 하였다

팩컴 공동마을 시장 오픈



8월 12일부터 직원들의 고향 향토 특산물을 직원들에게 홍보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팩컴 공동마을”을 오픈했다. 이는 오프라인 판매로 가격 거품을 빼고 저렴한 단가로 우수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와 직원을 소비자로 하여 회사 관리본부의 적격 심사 후 사내 게시판, 조회 시간 홍보, 사외보 광고 등으로 서로 상호간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안으로 오픈되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상품은 회사 및 집주소지로 배송되고 있다. 팩컴 공동마을은 365일 진행된다.

금연 캠페인 성공자



군포보건소의 협조에 의해 지난 3월부터 2013년 금연 캠페인을 시작한지 6개월 후, 관리본부 이원성 부장은 8월 27일 금연펀드에 가입한 직원을 상대로 불시 금연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예상외로 많은 직원들이 금연에 성공했다. 예년에는 무조건 펀드에 가

입하고 금연을 해보자는 유형이 많았지만 이번 금연 펀드 가입자는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갖춘 준비된 직원이 펀드에 가입하였으며 역시 올해는 안정주로 펀드가 진행되었다. 한편 금연 성공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3전 5기로 도전한 대단한 집중력을 발휘한 인쇄사업본부 이병길 본부장,

주·야 교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한 인쇄사업본부 윤석도과장, 어느 날 담배연기가 불쾌해져서 순간 담배를 멈춘 팩컴 관리부 신언철과장, 몸에 이상증후를 느껴 담배를 멈춘 제본사업본부 하상진 대리 등 4명이 성공을 하였으며, 3월에 가입한 금연펀드의 수익률은 10월 회사 창립기념일에 배분될 예정이다.

PS. 흡연자와의 어느 정도의 접촉이 폐암 등으로 진행 될 수 있을까요?

신입직원 소개

3/4분기에 새로 입사하여 팩컴그룹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Prepress사업부 이윤호, 제본사업본부 이국길(재단), 인쇄사업본부 장대원(매업), Prepress사업부 양희영, 국내영업부 김영모(열린), 북메이크 정윤영

또한 정년을 맞이하신 정정례(제본)님 축하드리며, 정정례님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계



약직으로 전환되어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의 소통의 시간



7월 1일 월례조회에서는 황혜미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과 소통의 시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아침 강의였지만 직원들은 적극적인 눈빛으로 경청했고 직장 동료와의 대화, 부하직원과 상사의 대화 등 다양한 소통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상황별 적



절한 예시와 함께 웃음이 넘쳐나는 강의를 해주신 황혜미 강사님 덕분에 직원간의 대화에서 전보다 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수상자 소개

지난 9월 13일 해외영업부(창조) 성문기차장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3년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인쇄업계와 회사 발전의 공로로 협회장 표창을 수상 하였습니다.





홍익미술전 후원

올해로 제 8회를 맞은 홍익미술전은 전국 미술대학 중 유일하게 홍익대학교의 11개 이상의 다양한 학과가 참가하는 연합전시로, 젊은 예술학도들의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도울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본 전시회는 지난 9월 2일(월)부터 7일(토)까지 홍익대학교 현대 미술관 HOMA 제1관(문현관 4층)에서, 9월 9일(월)부터 16일(월)에는 합정역 메세나 폴리스(복합 쇼핑 센터)에서 전시 되었습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금속조형디자인과, 목조형가구학과, 산업디자인과, 회화과 등 11개 학과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평면, 입체, 영상, 회화 등 각 학과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분야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팩컴코리아는 홍익미술전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예술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쇄물 제작을 후원했습니다. 인쇄 지원 내역은 미술전에서 사용되게 될 포스터 700장과 리플렛 4,500장입니다.

홍익미술전을 주최하는 기획단에서는, 팩컴코리아의 전폭적인 후원에 감사의 뜻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를 제안했습니다. 전시회 내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홍익미술전 도록에 지면 광고를 게재하며, SNS 홍보 포스트를 통해 팩컴코리아와 북메이크의 홍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후원을 통해, 팩컴코리아는 홍익대학교 미술학도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익미술전을 방문한 학생들과 업체들에게 팩컴코리아를 홍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미 선

PACOM 동호회 5

올 가을에는 사내 동호회에 가입해 동료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즐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자서는 하기 힘들더라도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무더운 여름기간 동안 활동이 짐작했던 Pacom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조 원 근

야구 동호회 – Pacom Sharks

회장 – 이원성 부장 (010-2351-4311)

운영 계획 : 매월 첫 주 토요일동호 회원은 팩컴 그룹 가족 14명이 있고 그 외 서포터즈가 2명이 있다. 그리고 팀 장비를 회사 및 스폰서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개인장비로 개인 글러브와 스파이크만 준비한다면 당신은 이미 Sharks에 들어갈 준비 완료!!

영화 동호회

회장 – 오지혁 과장 (010-7275-7782)

운영 계획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득 영화가 보고 싶은데 같이 볼 사람이 없다. 또는 친구들은 다 봤는데 나 혼자 못 봐서 난감한 영화가 있다?! 이런 경우 영화

동호회의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아! 물론 영화비는 동호회 활동 지원금으로 공짜입니다 !!

등산 동호회 – 산이조아

회장 – 이병길 본부장 (010-3384-5613)

운영 계획 : 봄, 가을에 한번씩? (불특정)

산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산이조아 동호회와 함께 이번 가을 여행 어떠신가요? 높은 물든 낙엽을 보며 자연을 만끽해 봅시다. 팩컴 식구라면 누구든지 참가 가능

축구 동호회 – Blue Bird

회장 – 황영걸 과장 (010-2646-9487)

운영 계획 : 매월 첫 주 토요일

남자라면 모두가 좋아하는 축구! 이미 블루 베드에는 유니폼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숨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르고 숨소리가 짐승처럼 변해도 당신은 지치지 않습니다. 축구는 팀 운동입니다. 11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한다면 지는 게임도 즐겁습니다.

낚시 동호회

회장 – 박충용 과장 (010-8720-2082)

운영 계획 : 봄, 가을 (1년에 2번)

낚시를 처음 배우고자 하시는 분, 바다 낚시 구경하고픈 분! 물때가 좋은 날! 이른 새벽 회사에서 출발하오니 낚시에 관심있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꼭 동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저자가 되는 그날까지!

“책 1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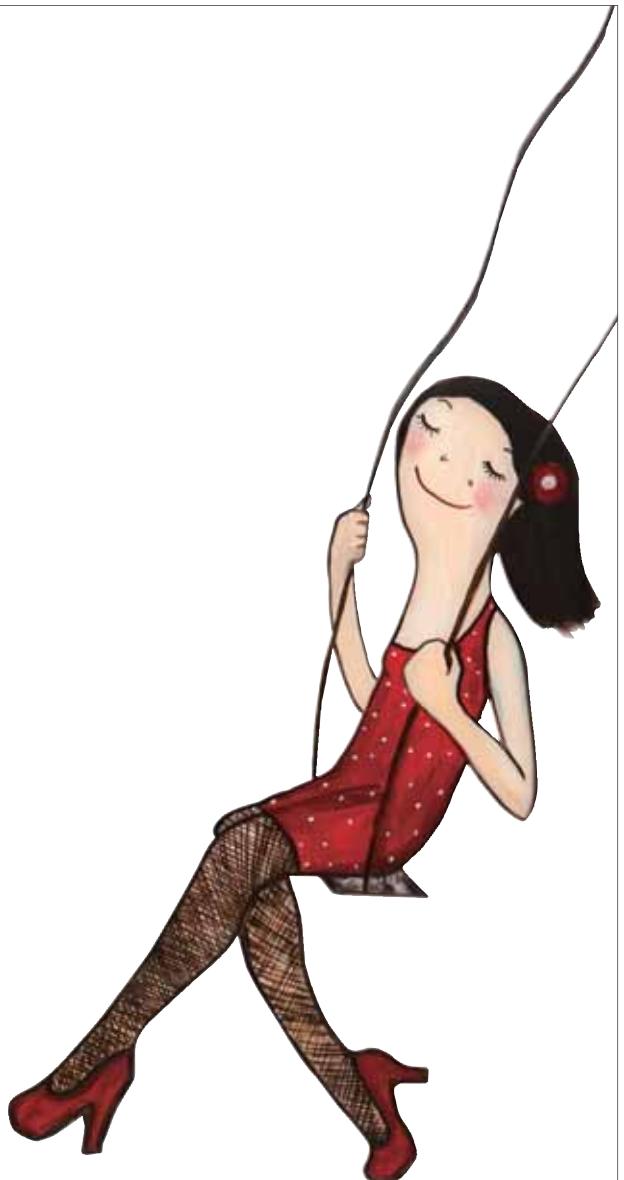
www.bookmake.co.kr



행복한 그림 이야기

에바 알머슨 · 박향미 지음
김유범 옮김

오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내려놓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지친 거 같거든요.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듣고 싶었던 음악을 듣고,
한없이 늘어지게 잠도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루만 저를 찾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말아요.
문제없을 겁니다.
모든 일은 다 잘될 겁니다.’

에바 알머슨이 그려낸
사랑과 행복!

파콤북스

www.pacombooks.co.kr

다음블로그 blog.daum.net/pacombooks

트위터 @pacombooks | 13,800 원